

Mount Vernon FR사의 새로운 난연 원단



Mount Vernon FR사는 새로운 내구성 난연 원단을 출시하였다. 이번에 신규 출시된 'Arapago R', 'Hopi N2X' 및 'Navajo N2X'는 원단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강력 나일론 또는 나일론/케블라와 면을 혼방한 제품으로 상당히 높은 내마모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출시된 원단은 American Society of Safety Engineer's(ASSE) Safety 2016 박람회에서 Mount Vernon FR의 부스에 전시되었다.

Mount Vernon FR사가 400명의 환경, 보건 및 안전(EHS)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우수한 내구성을 가지는 난연성 의류가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난연성 의류의 수명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Arapaho R'(중량 : 7.5 oz/yd²)는 면, 나일론 및 케블라 혼용 제품이다. 착용자의 피부에 닿는 이면은 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류 내부의 촉감이 부드럽고 편안하다. 반면 의류의 표면은 보호 특성을 유지하며 촉감이 거칠다. 나일론과 케블라 혼방으로 구성된 원단의 표면은 내구성이 높아 격렬한 마모에도 견딜 수 있는 난연복이 요구되는 산업에 적합하다.

'Hopi N2X'와 'Navajo N2X' 원단은 25 % 고강력 나일론 혼방 원단으로 쾌적함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내구성을 지니는 난연 의류로서 사용된다. 'N2X' 원단은 기존 원단에 비해 3 배의 마모에도 견딜 수 있으며, 높은 나일론 함량에 의해 수분 증발에 의한 냉각효과 및 빠른 건조가 가능하다.

'Hopi N2X'(중량 : 8.5 oz/yd²)는 바스켓(basket) 직물로 높은 인열강도 특성을 가지며, 우수한 마모수명과 더불어 경량성과 내구성의 난연성 의류가 요구되는 산업에 적합하다.

'Navajo N2X'(중량 : 9.5 oz/yd²)는 난연성 오버올(bib overalls) 작업복 및 외투에

적합하다.

신규 출시된 원단들은 Mount Vernon FR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다양한 난연성 원단들과 같이 'NEPA 70E', 'NFPA 2112' 및 'ASTM F-1506'을 포함한 모든 산업표준을 충족한다.

♠Textileworld (2016.06.24)